

#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박차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연속 선정 512개소 32억원 규모 보급시설 설치 등 추진

광주시 서구가 2045년 목표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관내 5개 동 512개소에 32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각종 탄소중립 활동과 사업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올해도 총 32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심지 주택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온수 생산을 위한 태양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보급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올해 대상지는 양동, 양3동, 농성 1·2동, 화정2동으로 479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33개소에는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1.7MW 규모로 연간 2,4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약 900톤의 탄소를 저감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구는 2020년 화정3·4동을 시작으로 총 7개동에 66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793개소, 태양열 30개소 및 연료전지 1개소 등 총 823개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내년에 지속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해 광천동, 치평동, 동천동, 유덕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저감 효과를 보기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4일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45 탄소중립 실천안내서'를 펼쳐냈다.

책자에는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등 4개 분야로 구성 가정 등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실천수칙을 담고 탄소중립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사건들과 일상생활 탄소

배출 경로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9,781톤 보다 17%가 상향된 1만 1,43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도시형성에 필수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 부동산거래 무료상담 서비스

광주시 서구가 오는 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부동산거래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상담소는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예약 (062-360-7053)을 통해 부동산 전문상담관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서(매매 및 임대차)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중개사의 위·유·의 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절차와 작성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정신건강 챙기는 마음안심버스

### 주 2회 스트레스 검사 등 제공

광주시 서구가 지역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방문해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검사 및 기타상담 등을 제공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다.

버스 내부는 개인상담 공간, 스트레스 측정 공간, 휴게공간으로 구성 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안심버스는 주 2회 평일 사전 예약한

신청기관 및 청년층이 많은 관련기관,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인력 등을 중심으로 운영 예정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 질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 현장에 파견돼 피해자들의 심리와 정신건강 지원을 돕고 있으며 재난상황 종료 시 시민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마음건강 돌봄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시 서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중인 마음안심버스. /서구 제공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광주시 서구는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2022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규모의 독서동아리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서구는 선정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토론 도서 ▲연차별 운영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상록도서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관련 서식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 설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 추진

### 연휴기간 상황실 171명 근무

광주시 서구가 설 연휴를 대비해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 주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2일까지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설 특별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12개의 항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각 분야별 상황대책반에서 선별진료소, 위생, 청소, 재난·재해, 교통, 환경오염감시, 광고불대책,

공원관리, 365민원처리 등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30대와 상무지구 롯데마트 1층에 위치한 '365일 민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교통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대책반을 편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과 방역대책반도 운영한다. /홍승현 기자

### 군 소음 피해접수 운영

#### 내달부터 상무소각장서 통합 진행

광주시 서구는 2월부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접수처를 상무소각장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1월중 관내 3곳(치평동·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유덕동 덕흥마을회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하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신청이 시작된 일상회복지원금과 접수 기간이 중첩돼 주민들의 대기시간 장기화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인원 분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유관기관, 주민대표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상무소각장(관리동 1층, 내방로 2)으로 통합 접수처를 마련하기로 결정·공지했다.

아울러 서구청 인근 및 동구·남구·북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거송빌딩 내 보조 접수처(6층, 경영로 17번길9)도 함께 운영한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월 광주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서구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월에 통합 접수창구를 마련한 만큼 접수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일 기준으로 39.0%의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

### '효도림 수당' 신청 접수

광주시 서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효도림 수당'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효도림 수당'은 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효행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액 구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직계존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뤄 실제로 주거하는 이른바 '효도자' 가구가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서구에 거주했다면 격월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도대상자(어르신)의 만 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과 효도자의 통장 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짝수달 20일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 /홍승현 기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 뜻을 가득한 임인년 되세요!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이제 경매로 노후대비하세요

010-6670-9800 / 010-7384-7800